



해외 닭고기 시장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AI 관련된 질병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4월 초에는 이집트에서 2명의 감염자가 AI로 인해 사망했고, 중국에서는 가금육 산업과 무관한 젊은 남성이 AI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미국 정부는 AI 발생 시 구체적 대응 요령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미국 인구의 절반이 복용할 수 있는 백신을 준비한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AI로 19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철새이동이 시작되는 5월부터 철저한 감시체제에 들어가고 있다. 아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의 가금육 산업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침체 때문인지 올해 전 세계 닭고기 소비량이 약 300만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따뜻한 봄과 여름이 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AI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단지 미국과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 AI가 발생한다면 2006년 한국의 육계산업은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는 아메리카가 비상이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5월말부터 미국의 알래스카를 시작으로 서해안에 야생조류가 이동될 것으로 보이며, 수십억 마리의 야생조류를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덴마크

잠정적 수입이 중단되었던 덴마크 가금육이 4월 26일부로 모두 해제되었다.

2월부터 나타난 통날개 (Three Joint Wings)의 품귀현상이 다음 달부터는 제한된 물량이 공급되므로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무역업체들은 ROSE Poultry 한국지사에게 많은 문의와 거래를 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4월에 들어오면서 오퍼가격이 약 30%이상 상승되었다. 미국정부가 자국의 가금육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구매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5월 오퍼가격이 상당히 급등했다.

왕장각(Jumbo Whole Legs)의 경우 950불, 미국산 통 날 개 (Three Joint Wings)는 2,300~2,400불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국제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방적인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보인다.

일본이나 러시아의 구매 움직임 또한 크게 보이지 않는다.

브라질

5월부터 야생조류가 이동함에 따라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범정부 차원에서 AI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4월 선적분 오퍼가격은 1,500~1,600불선이었으나 5월 선적분 가격은 1,900~2,000불 정도를 거론하고 있다. 한국의 업체들은 5월 선적분에 큰 반응이 없는 모습이다. 만일 브라질에서 AI가 발생한다면 가금육 산업의 절반은 불필요한 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중국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많은 업체들이 중국을 방문, 닭꼬치를 생산하고 있다. 주로 중국의 북경과 산동에 있는 공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스펙의 자숙꼬치와 데리야끼를 효율적으로 주문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4월 초까지 중국으로부터 약 3,000톤 정도가 수입되었고, 많은 주문량이 선적을 대기 중이다. 자숙 닭꼬치를 통해 닭고기 가공품 산업이 성장하고 진보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 못하는 사이에 대형 할인마트, 전국에 펼쳐진 편의점, 계속해서

창업되는 닭꼬치 체인본사들을 통해 중국산 가공품은 우리의 계육시장에 깊숙이 침투돼 있는 것 같다.

결론

한국의 무역업체들 대다수는 정보력이 미약하다. 그로 인해서 국제가격 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에 앞다투어 구매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덤핑가격과 저부가가치 경영이 이루어진다. 이웃나라 홍콩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의 패커들에게 당당하게 좋은 품질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하면서 국내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우리 육계산업은 보다 근본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의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하나로 응집해야 한다. 현재가 그러하다. 만일 '닭고기 무역협회'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고, 좋은 기회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